

## 본당

중요문화재, 에도 시대, 목조, 요세무네즈쿠리(우진각지붕 구조), 혼카와라부키 지붕, 폭: 약 26m 깊이: 약 19m

현재 사이다이 절(西大寺, 서대사)의 중심을 이루는 건물로 동탑 터 북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이 장소에는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에 지어진 고묘신곤도(光明眞言堂, 광명진언당)가 있었으나, 에도 시대(1603~1867년) 중기인 18세기 말에 현재의 본당으로 개축되었습니다. 폭이 약 26m, 깊이가 약 19m인 요세무네즈쿠리(우진각지붕 구조) 양식의 건물로 지붕은 수키와와 암키와를 번갈아 쌓은 혼카와라부키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는 각각 네 기둥으로 받친 폭이 넓은 향배(지붕이 돌출된 부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당 내부는 불상을 안치하는 내진, 그리고 내진을 동서남의 세 방향에서 둘러싼 외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진의 북쪽 중앙에는 수미단이, 동서에는 와키단(脇壇, 협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 월에는 본당을 특별히 아름답게 장식하여 진언율종의 최대 연중행사인 고묘신곤에(光明眞言會, 광명진언회)를 개최합니다. 건축 당시에 일반적인 공법이었던 토벽을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건축 기법으로 지어졌으며, 나라시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규모의 훌륭한 근세 불당입니다.

## 본존 석가여래입상

중요문화재, 가마쿠라 시대, 목조 바탕에 기리카네(금박을 가늘게 잘라 붙이는 기법), 높이 167cm

헤이안 시대(794~1185년) 이후 쇠퇴했던 사이다이 절(西大寺, 서대사)을 다시 부흥시킨 에이손 쇼닌(1201~1290년)이 불상제작자 켄케이(1197~1258년) 등을 교토 세이료지 절에 파견해 만들게 한 것으로 124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세이료지 절에는 헤이안 시대에 송나라로 건너가 공부했던 조넨 쇼닌(938~1016년)이 가지고 돌아온 고대 인도의 석가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는 석가모니의 모습을 축 빼닮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이다이 절의 석가여래입상은 그 불상을 충실하게 재현한 것입니다. 채색하지 않은 목재 위에는 가느다란 금박실로 그린 기리카네 문양이 입혀져 있고 불상 내부에는 많은 납입품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에이손 종파에서 석가모니 신앙의 기초가 된 이 상은 사이다이 절의 본존으로서 본당의 중앙 수미단에 모셔져 있습니다.

## 문수보살기사상 및 네 시자상

중요문화재, 가마쿠라 시대, 목조 채색, 높이 문수상 82.5cm 네 시자상 87cm~120cm

사자에 올라탄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좌측 앞에는 선재동자, 우측 앞에는 사자의 고삐를 잡은 우전왕, 좌측 뒤에는 불타파리삼장, 우측 뒤에는 최승노인을 거느린 이 상은 이른바 중국 오대산 문수 신앙에 바탕을 둔 문수오존상입니다. 문수 신앙을 하나의 근거로 삼은 에이손 쇼닌은 민중 구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상은 에이손(1201~1290년)이 사망한 후에 그의 제자들이 발원하여 에이손의 만 12년째 기일을 맞이하는 1302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문수상 내부에는 많은 납입품이 봉안되어 있습니다.